

“길 위의 부처님 발걸음 계승해 화엄세계 이 땅에 구현할 것”

신용훈 호남주재기자

+ - 🖨️ ↺

교계 입력 2021.10.08 20:36 수정 2021.10.08 21:04 호수 1604 댓글 0

삼보사찰 천리순례단과 함께 한 화엄사 '화엄음악제'
10월3일 LED조명 어우러진 아름다운 선율로 장엄



불교중흥을 발원하며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나선 상월선원 만행렬사 대중들이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에서 펼쳐진 '화엄음악제'에 함께하며 긴 여정에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냈다.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가 주최한 '화엄문화축제 2021'의 일환으로 10월3일 열린 화엄음악제는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동참한 대중들을 응원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천년고찰 화엄사의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공연을 선사하며 더욱 불교중흥과 국난극복 중흥의 원력이 더욱 굳건해지길 발원했다.

화엄사 대웅전 앞마당에 설치된 특설무대를 비롯해 화엄사 경내에서 진행된 화엄음악제는 운고각에서의 법고시연에 이은 범종각에서의 타종으로 시작했다. 화엄사 각황전과 대웅전, 보제루, 국보 제301호 '화엄사영산회괘불탱'에 LED 조명등을 이용해 만들어낸 동영상과 환상적인 미디어 파사드의 불빛 아래 아름다운 선율을 더하며 장엄한 무대를 만들어 냈다. 콰르텟 코아모러스(Quartet Coamorous) 인트로에 이어 여성타악그룹 도도의 퓨전타악, 팡페라 그룹 아피의 혼성중창, 가수 소찬휘의 대중가요, 국악인 박정선 명창의 소리와 남도민요, 정호승 시인의 시낭송 등이 펼쳐졌다. 특히 마지막 무대에서는 홀로아리랑 노래에 맞춰 펼쳐진 미디어 파사드 LED 공연으로 참석자들에게 화엄사가 불국토임을 선포하며 진한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화엄음악제는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총 도감 호산 스님의 발원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NH농협은행 301-0189-0372-01
KB국민은행 023537-04-004063

최신뉴스

더보기 >

교계

대법원, “조계종노조 징계 부당하다”
판결



한마음과학원, 제6회
학술세미나 열려

2001년 중단된 '뇌허불교학술상'...20년 만에 ...
제2회 운강명상학술상 이영진, 하현주 수상...1...
불교문예연구소, 제18차 학술대회 개최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사유하는 기쁨' 출판간...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소집...‘정청래 의원...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
함박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주년 기념 인연이...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의날 기념식 국무...

연재

< >

자현 스님의 유튜브브 입성기

18. 즐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김진영의 불교, 동물을 품다

18. 기러기 - 상



박희택의 경전 읽는 기쁨

42. 지혜 ㉞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엄, 길 위에 서다"라는 화엄음악제의 주제는 2600년 전 길에서 나서서 길에서 진리를 전하다 길에서 열반에 든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원력을 계승하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의 역경을 극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불교중흥을 발원하며 송광사와 해인사, 통도사로 이어지는 삼보사찰을 순례하고 있는 천리순례단의 걸음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18일까지 이어지는 423km의 대장정 중 화엄사를 방문해 더욱 기쁘다"며 "화엄음악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선사하며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화엄(華嚴)'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총 도감 호산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어리석은 이들도 지혜로워진다는 지리산의 품 안에서 삼보를 외경하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꽃을 피우기 위해 다시 한 번 길 위에 서고자 한다"며 "어둠의 바다에서 중생들을 건지고자 길에서 가르침을 펴고 길에서 열반하신 부처님의 길을 따라 오직 정법 포교의 길을 가겠다"고 발원했다. 이어 "이 길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들을 수행의 화두로 삼아 한없이 탁마하고 쇄신하며 정진하겠다"며 "산과 들을 화엄세계로 함께 수놓은 이름 없는 풀 한 포기, 돌 한 조각처럼 병마를 이기는 약이 되고 어둠을 몰아내는 신장이 되어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호산 스님은 또 "부처님이 굴린 진리의 수레바퀴는 선재동자의 구도와 정법의 광도중생으로 되살아나 이 자리에 함께한 화엄행자 모두의 가슴속에서 생생히 살아 숨 쉬고 있다"며 "한 걸음 한 걸음 청정하고 지극한 실천으로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하며 공동수행을 이끌어나가는 결사대중의 간절한 소원을 받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상월선원에서 시작되어 삼보사찰 순례로 이어지는 천리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원융무애한 화엄세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내일도 길 없는 길 위에 다시 서겠다"며 "이제 지리산하에 화엄세상에 꽃이 핀다"고 마무리 했다.

한편 공연에 앞서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이끄는 회주 자승 스님은 상월선원의 의미가 담겨있는 원력과 정진 상징 장군축비를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에게 전하며 화엄사의 순례단의 외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형규의 통찰

양형진 은석초등학교 교장



법보시

"법보신문 전법원력, 어려운 ..."



많이 본 뉴스

- 01 광주시, '가톨릭 순례길' 조성사업 공식 사과... "전면 재검토"
- 02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 03 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
- 04 미디어오늘, 불교계 언론보도 왜곡하나
- 05 근현대 불교 이끈 구하·한암 스님 조명... "역사 바로세워 자부심 높일 것"
- 06 조계종 "불교계 사기꾼으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 공개 참회하라"
- 07 오대산 정취와 뮤지컬을 한눈에... '사찰 뮤지컬'이라는 장르 탄생
- 08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09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10 봉은사 개산대제, 지역문화예술축제로 업그레이드



신용훈 기자 boori13@beopbo.com

[1604호 / 2021년 10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0개의 댓글

작성자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작성자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① BEST댓글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BS**